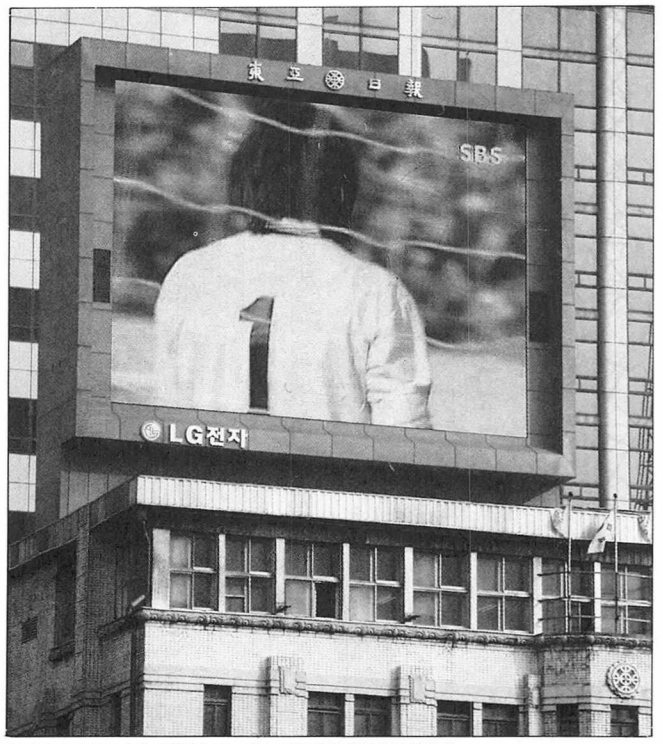
인간을 위한 도시문화를 위하여

현대 도시문명의 위기 진단한 책들 잇따라

현대 도시문명 건설의 이념은 풍요로운 공간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자는 이상사회를 향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과 무관하지 않아서 잘못 구현된 반사회적, 반문화적 환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우리의 도시문명은 그러한 유토피아에 근접해 있는가.

최근 현대 도시문명의 현상과 위기를 진단한 책들이 나와 우리의 공간문화에 대한 시선을 깊게 해주고 있다. 《공간, 육체, 권력》《미술과 도시》《옷을 갈아입는 아파트》《책같은 도시 도시같은 책》 등 일련의 책들이 그것. 이들 책은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완결된 통일구조로서 '작품'의 의미보다는 과정과 모순으로서 '텍스트'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세상을 읽어내듯 도시와 그 집중현상인 '서울'을 읽어낸다.



멀티미디어 홍보매체의 등장은 새로운 도시문화의 환경을 조성한다.
(《옷을 갈아입는 아파트》 중에서)

텍스트로 읽는 도시

《공간, 육체, 권력》(강내희 지음, 문화과학사)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육체적 취향, 특징, 능력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과 다른 인간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공간, 권력, 육체, 정치라는 제각각의 요소를 결합시켜 자본주의 상품공간 서울을 해명하고 있다.

저자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이 출현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권력의 생산과 통제, 그에 따른 권력에 대한 저항문제를 다룬다. 롯데월드나 압구정동, 그레이스백화점, 대학로의 모습들이 형성되는 과정과 연유,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물질적 위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인간들이 교섭하는 방식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변혁과 어떤 연관을 맺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한다. 그는 서울의 대부분 문화공간을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라는 정치·사회구조로, 그 상품미학의 반영과 문화소외현상으로 읽어낸다.

《공간, 육체, 권력》이 서울의 독점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민의 소외문제를 지적했다면, 미술사적 맥락에서 세계 도시문화를 천착한 《미술과 도시》(최태만 지음, 열화당)는 먼저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문명과 유럽 도시문명의 역사적 흔적을 개성있는 미술작품들을 통해 소개한다. 또한 미술평론가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삶의 풍습을 살피고 그것이 미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밝혀본다"는 취지 아래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직면한 도시팽창과 만연한 소비문화 속에서 미술이 어떻게 대처하고 관심을 표현해왔는가"를 집중조명하고 있다.

'미술'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 현대 도시문명의 위기에 대한 진단서의 의미를 갖는 이 책은 후기산업사회의 도시화현상 속에서 교통, 주택, 교육, 보건, 복지, 환경문제 등이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일차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과 건물디자인의 개선방향을 밝힌 《옷을 갈아입는 아파트—문화환경의 디자인과 비평》(서규환 외 지음, 열린세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만나는 '문화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각계 27인의 필자들이 국내 각 도시의 건축물과 환경에 나타난 반문화적 의미를 지적한 담론서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사무공간, 길거리의 미적 가치, 대중교통 수단의 문화적 이해 등 우리 문화현실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모색을 시도한다. 특히 생활디자인 문화 혹은 환경디자인의 본격적인 문화운동을 통해 문화현실을 비평하고 극복하는 공식적인 '디자인 비평'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탄생을 위한 검증 필요

환경설계학자 황기원씨가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확인한 삶의 결을 통해 도시의 원형을 그려보인 《책같은 도시 도시같은 책》(황기원 지음, 열화당)은 책같은 도시 속에서 느낀 단상 67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분석적 성격의 책들과는 달리 서정적 세계관과 은유·상징을 동원한 문학적 비유가 돋보이는, 도시를 소재로 한 에세이 성격의 글이다.

저자는 개발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나 문명의 진보성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낳은 폐해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공간 이용의 실상과 문제에 주목한다. 도시를 책같다고 보는 이유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고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아름답고 이로운 문화를 이룬 것"이 바로 '책'과 '도시'라는 생각에서인데, 책같은 도시는 지극히 문화적이면서도 지극히 자연적일 것을 주장한다. 이 점은 저자가 추구하는 도시미학을 의미하며, 이 책에 실린 140여 점의 사진들은 고유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도시 곳곳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도시는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으로 다가온다. 뒤틀린 도시의 형상은 결국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한다.

문화비평모임 나라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규환 교수(인하대 정외과)는 "제대로 된 문화와 행정으로 갈아입은 도시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텍스트로서의 검증작업은 매우 유용하다. 앞으로 도시문화관련 연구는 건축, 미술, 사회, 문화정책 전반의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해당지역 공간에 맞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끌어내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정민 기자